

예수님과 도마

핵심 구절: “그가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네 손가락을 대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요한복음 20:27

선정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24-29

사도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24)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도마는 형제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20:25) 그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상처를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또한 인간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슬픔을 겪은 후에는 새롭게 솟아나는 희망에 현혹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만남을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20:19, 20

8일 뒤, 제자들은 다시 문을 닫고 안에 모여 있었다. (요한복음 20:26)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두려움을 단번에 없애주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스승께서 하신 이 다정한 말씀은 요한, 베드로, 바울의 신약 서신에서 초기 교회를 향한 인사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방 안의 불안감을 달래주시며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믿음이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서는 토마스를 향해 돌아서시어, 우리 본문 구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대고, ... 네 손을 내밀어 보아라.” 이는 토마스 자신이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27)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했던 것은

토마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든 제자들은 의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11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추가 기록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깜짝 놀라 두려워하며, 유령을 본 줄로 생각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당황하느냐? 왜 너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만져 보아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에게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쁨과 경이로움에 휩싸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누가복음 24:36-41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는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믿지 말고 믿으라.” (요한복음 20:27) 의심은 혼란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충성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계속 주저할 것인가? 믿음은 의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고 극적인 고백으로 응답했습니다(요한복음 20:28). 여기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을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후 모든 세대를 향해 이 심오한 말씀으로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29)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실천합시다.